[](http://snd1.org/)

***노틀담 수녀회 성령 총대리구***

***2017년 10월 소식지 9권 #6***



**경축의 종이 울린다!**

***2004년, 케냐 쇼키마우***

*나이로비에 우리 수녀원을 가지는 것은 메리 쇼바나 수녀와 탄자니아 수녀들의 꿈이었습니다. 메리 아루나 수녀는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가르멜 전교 수녀회 소유인 시나이 산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진행되었고 메리 아루나 수녀는 부지를 우리에게 매각하려는 좋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메리 아루나 수녀는 아루샤의 메리 쇼바나 수녀와 다른 수녀들의 도움으로 일을 진행하여 2003년에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수녀는 땅을 매입할 때 부지 주변에 나무를 몇 그루 심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 후 2004년에 인도의 성모 승천 관구장인 메리 아니마 수녀는 수녀들에게 수녀원을 지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려주었습니다. 2004년 5월, 케냐, 나이로비의 쇼키마우에 학교와 수녀원을 만들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6월, 수녀원과 학교 건설을 감독하기 위해 메리 로시니 수녀가 쇼키마우로 파견되었습니다. 7월, 수녀는 계획을 마무리하고 좋은 하청업자를 찾아내기 위해 엔지니어인 카스미르와 만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살레시아회 신부들과 여러 해 일했던 아시아인 만지가 하청업자로 선택되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9월 8일,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모님 축일에 메리 로시니 수녀는 죠지 카분갈 신부, CMI를 초대하여 쇼키마우에 노틀담 학교와 수녀원을 세우기 위한 획기적인 예식을 열었습니다. 10월 1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축일에 수녀원과 학교의 주춧돌이 축성되었습니다. 메리 아루나 수녀, 쇼비타 수녀, 로시니 수녀는 이 날을 위해 멋진 기도 예식을 마련했습니다. 이웃들과 우리 엔지니어인 카스미르, 하청업자 만지, 세 명의 ND 지원자와 수녀들 몇이 이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12월 4일에는 메리 로시니 수녀가 아이들과 첫 번째 인터뷰를 했고 2005년 1월 25일은 쇼키마우에서 열 두 명의 학생들과 노틀담 학교를 개교한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수 년간 더 많은 학생들이 왔고, 2017년인 지금은 몬테소리 I 부터 3학년 학생 415명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축복이며 은총인지요!*



